

전남창의융합교육원, 창의융합인재 육성 산실 '우뚝'

학습탐구 체험관교육정보화 연수실 구축 개관

'창의·인성 겸비한 융합형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원장 김경미)이 체험관 및 교원 연수실(과학·정보)을 구축하고 18일 열림식을 개최했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인재를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핵심 책무라는 인식 아래 지난 해 3월 1일자로 전남교육정보원의 교육정보부를 이관해 선제적으로 옛 전라남도과학교육원을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전남창의융합교육원은 출범 후 탐구 학습관

과 과학실험실의 노후 기자재 및 전시물을 교체하고, 연수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등 새롭게 재정비했다. 또한, 별관인 융합관에 4개의 교육정보화 연수실을 구축, '창의·인성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로 새로운 혁신 전남교육의 산실로 거듭나게 됐다.

특히, 이번에 구축된 교육정보화 연수실은 공간 재구조를 통해 데스크탑 전용실, 데스크탑과 태블릿 pc 겸용실, 그리고 노트북을 활용한 회의실과 쌍방향 연수를 운영할 수 있는 다용도실로 구성됐다.

또한, 모든 실은 30명 이상이 스마트 및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다양한 미래 에듀테크 교육을 배우고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열림식에 참석한 장석웅교육감은 "교육정보화연수실 및 탐구학습관 개관에 애써 준 창의융합교육원 관계자들의 노고에 각별한 고마움을 전한다"고 격려하고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이 학생들에게는 미래의 꿈과 창의성을 길러주고, 교원들에게는 창의융합 교육에 필요한 연구 역량을 키워주는 마중물이 되어줄 것"을 주문했다.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 김경미 원장은 "앞으로 우리 원은 창의융합 교육에 관한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온·오프라인 교실 혁명을 이루며, 꿈과 열정이 가득한 체험학습과 대회 운영을 통해 도내 많은 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전남교육의 혁신 공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림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 환기 등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했다. 김경환기자



금호평생교육관, '중학학력인정 성인교육 졸업식'

중학 졸업장 받은 만학도 27명만의 작은 졸업식 진행

금호평생교육관이 지난 19일 제4회 중학학력인정 성인교육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제4회 중학학력인정 성인교육 졸업식'은 2018년 3월~2021년 2월 3년 동안의 중학학력 인정과정을 마친 만학도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졸업식은 중학학력인정서 및 교육감 표창, 3년 개근상 등 각종 시상과 금호평생교육관에서 준비한 꽃다발 수여, 관장 축하 등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중학학력인정서를 받은 만학도들에게 누구보다도 기쁜 졸업식이었다.

금호평생교육관은 졸업식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잦은 비대면 수업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의 추억을 담은 중학학력인정 학습활동 실적 모음집 '아름다운 도전'을 발간한 바 있다.

금호평생교육관 장문수 관장은 "가족의 축하 속에 행해졌던 졸업식을 코로나가 빼앗은 거 같아 안타깝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까지 막지 못해 만학도 27명이 중학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만학도들이 배움의 열정과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관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평생교육관은 올해 중학학력인정 과정 1단계 신입생 및 2단계 편입생을 모집한다. 중학학력 취득 기회 제공을 위한 '중학학력인정 성인교육'은 학령기를 놓친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선택과목 등 6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자세한 내용은 금호평생교육관 홈페이지(<http://lib.gen.go.kr/geumho/>)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운영과(☎062-360-6632)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호기자

순천대-제주대 학생홍보대사, 비대면 교류행사 소통 네트워크 구축

순천대 '순정'소속 10명·제주대 '제라미' 소속 12명 학생 참여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와 제주대학교(총장 송석연)의 학생 홍보대사가 최근 화상회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국립대학 간 연계강화를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순천대 홍보대사 '순정'소속 10명과 제주대 홍보대사 '제라미' 소속 12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지난해 활동 내역 및 성과발표와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 새로운 프로그램

램추진에 대한 애로사항을 공유하였다. 양 대학 홍보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류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향후 국립대학 간 연계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활동을 약속하였다.

향후 순천대 홍보대사 '순정'은 인근 지역 국립대 홍보대사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연합대학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온·오프



라인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영암교육청, 겨울특강으로 가야금 기량 향상에 큰 도움

주말 가야금산조 계승교육 겨울특강 운영



영암교육지원청(김성애)은 2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6일간 주말 가야금산조 계승교육

겨울특강을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전수자반 9명, 병창판소리반 5

명 총 14명을 대상으로 인간문화재 양승희 선생 및 병창 및 판소리 전공 강사가 가야금산조, 병창, 판소리 부분을 집중 지도 할 계획이다.

인간문화재 양승희 선생은 가야금산조 계승교육이 매년 3월에 시작하다보니 학생들 교육 공백이 생겼는데 이번에 2월 특강을 할 수 있어 학생들의 기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성애 교육장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야금산조 계승발전과 지변 확대를 위해 주말 가야금산조 계승교육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가야금교실, 찾아가는 가야금교실, 가야금동아리를 운영하여 영암의 모든 아이들이 가야금을 사랑하는 영암교육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